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2016년 11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29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11. 29(화)	담당부서	기계소재표준과
담당과장	김동호(043-870-5370)	담 당 자	박용균 연구사(043-870-5339)

「플라스틱 꼭지」, 「전기 감응식 수도꼭지」도 KS 인증 받는다

- 수도꼭지 재료 규정 삭제 등 KS 개정 고시(11.30) -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수도꼭지의 재료 규정을 삭제하여 「**플라스틱 수도꼭지**」, 「**스테인리스 스틸 수도꼭지**」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수도꼭지가 11월 30일부터 한국산업규격(KS)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
* 종전 수도꼭지의 재료는 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한정되어 주로 황동에 도금된 제품만 한국산업규격(KS) 인증이 가능하였음

□ 또한, 호텔, 공항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도꼭지로, 손을 씻으려고 가까이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물이 안나오는 「**전기 감응식 수도꼭지**」, 목욕탕 등에서 온도를 조절해 사용하는 「**자동 온수조절식 수도꼭지**」도 한국산업규격(KS) 개정에 반영해 한국산업규격(KS)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.

□ 한국산업규격(KS) 재료 규정을 삭제하는 반면에 도금 내식성, 내열성, 내한성 기준 등은 강화하였고, 수돗물에 납, 비소, 카드늄 등 중금속이 나오는 지를 시험하는 용출시험은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과 일치시켜 중복 시험 이중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음용수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했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수도꼭지 한국산업규격(KS) 인증 업체가 72개에 이르며, 수도꼭지 시장 규모는 연간 약 3천억 원 규모로 원자재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수도꼭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,

○ 또한,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,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수도꼭지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□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재료 규정 등 경쟁 제한적 규제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국산업규격(KS)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개정된 수도꼭지(KSB 2331) 표준은 「e나라표준인증」 사이트(http://standard.go.kr)」에서 볼 수 있다.

플라스틱		
스테인리스 스 틸		
탄소섬유		
유 리		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 공업연구사(043-870-533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